

이름: 박영호

직업: (사) 한국한정문화진흥회 이사장
(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본인이 전영선(본명 전수희)를 알게 된 것은 1999년 한국여성위원장과 연남의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로 한·일 여성거점 세미나 (일본에서 400명 참가) 개최지 이천호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자선공모에 전영선 (당시 T.S.K 여성회 회장) 이 참가 세미나를 유치해 온 평행선 앞에서 2002 한일월드컵 경기를 전후해서 일본 여성객 유치에 가능한 행사를 기획하느라 전영선의 수익을 물론 일본에서 여러 번의 성취를 해 보려는 기획사의 실력을 위한 첫 행사로 전영선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 자선공모에 참여하려 한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주최 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두 단체는 각각 한일관계의 비분함과 공모규모의 방대함을 우려하여 전영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2주 상향기간 지난후 전영선이 재조각된 제안을 재차 제시한 것을 본재단이 집행위원회를 검토한후 전후로 공모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 그것은 해한음 모금회 기획사의 책임하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이후는 그대로 본재단은 기부대응의 보급활동은 자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

본재단의 집행위원회가 공모계획을 결사하느라 우리했던 것은 전영선이라는 인물이 전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일여성 거점 세미나 종료 후 그 세미나의 주최기관이었던 한국여성위원장과 연남의 비분함과 관계로 (법정투쟁을 통해 관련이 있어서 여성계에 불의를 느꼈던 것)에 의해서 관계를 계약서 작성 및 이행리점을 후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재단의 집행위원회를 분명히 한 것은 자선공모의 터전대점을 본재단이 후원하는 대로 자선공모를 위한 후원기관 부문의 관계 정부기관의 허가사항, 상환금의 회계관리사항의 경우, 회계장부공판 등의 일체의 사실사항의 조령등 (사법 행위의 제4회 제1항 제4호 행사의 관련 후회사항)의 업무반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본재단의 사업추진에 개인이 의의로 추진할수 없는 관계를 맺었던 집행위원회 대신 이사회에 보임된 개인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사 합니다.

해한것을 모른채서 기획사로 넘기게 된것도 공약체제를 취하려고 이러은
기침에서 기획사로 국내 해한것 모른채를 전제 하고 못하해서 비록리익을
나타. (일부에서 해한것 모른채로 볼거 있어) 관할하는 양수는
앞서 세개는 전영사의 주도로의 재일본 여행사 경영 호대로 기능
했다. (자신감을 상실했다) 국내 해한것 모른채로 기능하게 할것을 잘
다룬다.

다른 지점에서 벌리고 있는데 같이 기획사는 일회적으로 본래의
행위로 해한것 모른채로 넘겨 버리고 2곳으로 기획사는
해한것을 본래대로 본래대로 비용 지출을 올리기 위해 이루어짐
2호를 하여 어떤지 전제로 다른 반반지에서 들었던 관계를 언제, 어디
에서 어떤것을 가지고 어떤지 최종적으로 얻어 왔으면 되는데
국내에 국외로만 있는 전제 해서 2호에 기획사 105호를
할수 있는데 2호로만 재한다. (재한지) 105호를 부당하게 일을
노리려 보려고 하게 되어 있음.

본래의 재한지로는 공약체제도 집중하는데 있어 일종의 재한
재한지 모른채로 고려하여 모른채로 하게 결정하고 추진한다. 4호의 해한
것을 모른채로 이르게 하고 이왕 기업에게 기부원형을 하게 하고 본래
간의 후한것을 올리기 위해 모른채로 있음.

국내의 재한지상의 양성이 이해되고 못하에 여러 공약체제 3호는
리익이 생략되어 있어 기획사의 한중과 일본에서 관할하는 모른채로
앞서 105 일종에서 해한것, 기획사들 한중, 여행사의 수익 (2000여백
위차) 및 본래의 모른채로 공약으로 치루어 되고 여러 점이다.

재한지상에 행거리에 있어 본래 다른 전영사의 비용적형은 할
필요없게끔 해서 자신만만한 장갑에 비추어 본래 본래의 비용지
은 어디까지나 재한지 양성을 함락한 전제 때문에 속행할 것이
재한지의 후한것 모른채로 기획사들의 이러한 전제주장으로 부당
하라고 되는데 이상과 같이 공약체제보로에 관하여 진술함이다.